10.15686/fkl.2024..62.275 OPEN ACCESS

동시대 한국소설에 나타난 퀴어 즐거움의 서사적 의미망과 퀴어 느낌의 정치

정미선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가족커뮤니티사업단 HK연구교수

목차

1 서론
2 관계적 삶의 규범을 심문하는 퀴어 즐거움
3 좋은/살만한 삶의 느낌들을 재정의하기
4 결론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8S1A6A3A04042721).

이 논문은 2024년 6월 27일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전국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학술대회에서 유익한 코멘트를 주신 안아름 선생님, 권대광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또한 논문 심사 과정에서 영감을 주는 질책과 조언을 아끼지 않고 선물해주신 익명의 세 분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

국문초록

퀴어 느낌의 정치는 섹슈얼리티 실천을 둘러싼 퀴어 정치를 넘어 좋은 삶 내지는 살만한 삶이 무엇인지를 질문하면서, 퀴어한 몸들이 살아내는 삶의 방식과 느낌들에 이름을 붙이고 그 의미를 추적하여 대안적 삶의 다른 가능성을 탐색한다. 본고는 동시대 한국소설에서 퀴어 느낌의 정치에 주목할 때, 김지연, 김병운, 이선진, 김멜라의 소설적 사례들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현상되는 퀴어 즐거움의 양상과 서사적 의미망을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서사화된 퀴어 즐거움은 퀴어 느낌들의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부정성과 긍정성의 분절적 스펙트럼을 포괄하면서 나타나며, 퀴어 인구의 삶에 현상되는 즐거움의 내러티브를 통해 규범화된 관계적 삶의 문법들에 질문하고 삶의 느낌들을 재정의하려는 위반과 협상의 순간들을 동반한다. 결론적으로 동시대 한국소설에 나타난 퀴어 즐거움은 친밀성, 시간성, 정동체계를 아우르는 규범성의 구성에 대한 성찰적 즐거움을 통해 특권화된 생애 각본에 저항하며, 좋은 삶 내지는 살만한 삶의 다른 생성적 계기이자 그 자원으로서 정치적 역능을 구현하는 퀴어 즐거움의 가치를 제안한다.

국문핵심어: 퀴어 즐거움, 규범성, 퀴어 인구, 좋은/살만한 삶, 퀴어 느낌의 정치

1 서론

이 글은 동시대 한국소설의 퀴어를 형상화하는 서사적 사례들에서 약간의 유머, 웃음, 즐거움을 주는 서사적 순간들이 곧잘 포착된다는 점에서 시작한다. 한국소설을 읽는 (퀴어) 독자들은 아마도 빈번하게 정서 이방인[1]으로서의 경험을 할 것

1 사라 아메드(2023A)에 따르면, 정서 이방인(affect aliens)은 주위 사람들과 다르게 영향받음(affected)으로써 소외되는 사람들이다. 가령 여성혐오적 농담에 모두가 웃고 있는 순간에 그 웃음과 유리되는 웃지 못하는 사람들 또는 적극적으로 그 즐거움을 깨는 킬조이 형상이 정서 이방인의 사례다. 사라 아메드, 김다봄 역, 『페미니스트 킬조이』, 아르테, 2023, 50-51쪽 참조.

이지만, 이러한 일군의 소설들을 읽으면서 경험적으로 우리는 상당한 즐거움을 얻곤 한다. 이 즐거움은 때로는 공격적이고, 자학적이며, 전도와 풍자 속에서 해방감을 주기도 하고, 성찰적이며 삶에 대한 시각을 제공하기도 한다. 본고는 이처럼 다양한 효과들과 함께하며 서사에 수반되는 일종의 즐거움을 퀴어 즐거움(queer joy)으로 명명하고, 동시대 한국소설에 나타난 퀴어 즐거움의 양상과 의미망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동시대 한국문화 속에서 퀴어 즐거움은 퀴어 유튜버나 스탠드업 코미디 공연 등에서 다양하게 시도되어 왔으며 퀴어 하위문화 속에서 낯선 영역은 아니다. '정통 보수 낙태반대활동가 목사의 막내 딸'로 자신을 호명하는 다이크 마이크 스탠드업 코미디쇼(2024)나 '우리 가족 LGBT'를 성스럽고 거룩하게 부르는 이반지하의 콜라보 공연(2019), 예지주의 유튜브 라방, 굉장한 여자 굉여의 컨텐츠 등은 다양한 방식으로 퀴어 하위문화와 퀴어로 사는 삶에서 경험하는 느낌들을 즐거움의 정동적 현장으로 데려와 향유하게 한다.

비록 이처럼 퀴어 하위문화나 이성애규범적 문화를 유머의 대상으로 삼는 명시적인 코미디 장르가 아닐 지라도 이러한 웃음과 즐거움의 코드들은 동시대 한국소설에서도 꽤 자주 만날 수 있는데, 특히 김멜라, 이선진, 김병운, 김지연의 소설들에서 발견할 수 있는 사례들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왜 즐거울까? 이 즐거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즐거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고 어떤 인지적 경험, 서사적 경험을 할 수 있는가? 이는 퀴어 즐거움의 서사화에 대한 의미화와 해석을 필요로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러한 경향과 의미에 대한 나름의 접근법과 해석을 담은 구체적인 응답을 찾을 수 없어보인다.[2] 본고의 목적은 동시대 한국소

2 관련하여 동시대 한국문화의 퀴어 코미디 장르 및 영문학 텍스트를 대상으로 한 두 편의 석사학위논문 사례를 찾을 수 있다. 김시언,「퀴어 코미디와 수치심의 정동 정치—국내 퀴어 유튜브 및 팟캐스트 콘텐츠와 구독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4; 심은,「샬롯 브론테의『빌레트』에서 퀴어 행복 찾기」,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0. 또한 한편으로 동시대 한국문학의 현장비평 장에서 김건형은 퀴어 정동을 과소 독해하면서 퀴어를 사회적 부정성과 죽음 충동의 체현물로 읽는 독법에 문제를 제기하면서(「'퀴어 신파는 왜 안 돼?」, 153쪽), "낭만화와 비극화를 모두 넘은 퀴어의 세속화"로 퀴어 서사의 사례를 설명하며 박상영 소설의 '농담'을 수치심의 무화(「2018, 퀴어 전사」, 49-50쪽) 및 패배의 농담이 갖는 전복성(「정확하게 실패하는 패리스와 비아그라, 아무것도 아

설에서 퀴어 즐거움의 느낌들이 감지되는 사례들에 주목하여, 퀴어 느낌들을 탐색하는 퀴어정동정치[3]에서 상당히 논쟁적인 개념인 퀴어 즐거움을 어떻게 이해하고 의미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 탐색해볼 것이다.

왜 퀴어 즐거움은 논쟁적인가? 주지하듯이, 퀴어 즐거움은 퀴어 이론의 반사회적 전회 이후의 다단한 이론적 맥락을 수반하는 논제이다. 미국학의 고맥락적인 장소에서 탄생한 퀴어 개념과 퀴어 정치학은 에이즈 위기 속에서 새롭게 생성되어, 시민권 정치에서 퀴어 자유주의 주체로서 미국의 예외적 시민화 및 9.11 이후의 맥락들을 거치면서 동성애규범성, 퀴어 리버럴리즘, 핑크워싱 등의 논의를 경유하여 퀴어 느낌(queer feeling)을 탐색하는 삶 정치로 이행해왔다.[4] 이 과정에서 퀴어 연구는 섹슈얼리티의 논제를 단순히 누구와 섹스하는가나 어떻게

닌 농담의 온도」, 256-258쪽)으로 읽는다. 이는 퀴어 느낌들의 아카이브에서 농담이라는 비평적 표현을 통해 퀴어 즐거움의 정치에 접근하고자 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사례를 제외하고 동시대 한국문학의 현장비평 장에서 퀴어 즐거움의 서사화 경향에 대한 다양한 접근법 및 구체적인 해석을 담은 응답은 찾을 수 없다. 김건형, 『우리는 사랑을 발명한다』, 문학동네, 2023 참조.

3 퀴어 정동이론 내지는 퀴어 정동정치의 중요 참조점이 되는 세즈윅의 정동이론은 "정동을 주체의 감각적 차원에 개입하는 이성애규범성에 저항하고 감각의 작동 방식 자체를 의심할 수 있는 인식 틀을 제안"하는 것으로 보며, "부적합한 정동으로 배제되는 다양한 감각, 감정, 인지 등을" 포착하는 데서 시작한다. "퀴어정동이론은 특정 정동을 퀴어한 정동의 전범으로 간주하는 이론이 아니라, 구체적 상황에서 배제되는 다양한 정동들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지, 나아가 그 정동들을 어떻게 변화의 자원으로 삼을 수 있을지 체계화하려는 시도"이다. 허성원, 「페미니즘의 퀴어정동정치를 향하여: 독해실천으로서의 퀴어정동이론」, 『한국여성학』 제35권 2호, 한국여성학회, 2019, 90쪽 참조. 허성원의 연구가 퀴어정동정치에 대한 논문에서 적확하게 밝히고 있듯이, 퀴어정동정치는 정동(affect)을 개념적으로 구분하거나 변별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구체적인 일상적 삶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감각의 작동 방식과 그 느낌의 차이들을 포착하는 데 주목하며 이를 변화의 정치적 자원으로 삼고자 하는 데 초점이 있다. 본고가 퀴어 즐거움의 서사적 현상들에 관심한 까닭은 기존 한국소설의 퀴어 미학에 대한 논점들이 서사가 모의하고 매개하는 느낌들을 규명하는 퀴어정동정치의 서사 미학에 큰 관심을 기울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퀴어 이론의 반사회적 전회를 넘어 포스트 퀴어 정치학의 시대에 퀴어함을 질문하는 것은 오토픽션 논의를 넘어 퀴어 미학의 여러 서사적 전략들을 탐구해야 하는 과제를 요청하고 있기 때문이다.

4 정미선, 「퀴어」, 류도향 외, 『가족커뮤니티의 개념들 관계편 2 나와 타자』,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23, 158-179쪽 참조.

섹스하는가의 문제로 환원하지 않으며, 퀴어 인구(queer people)의 삶의 방식과 삶의 느낌들을 포괄하면서 좋은 삶이란 무엇이며 삶의 규범과 제도와 자원 그리고 가치와 정동체계가 어떻게 배분되어 우리의 삶을 틀 지우는지에 대해 더 많이 주목하게 되었다. 퀴어 즐거움이라는 논제에 대한 탐색은 이러한 맥락에서 퀴어 즐거움의 논제를 포괄하는 퀴어 느낌들의 정치에 대한 탐구 경향 속에서 만들어진다.

이러한 퀴어 느낌들의 정치는 퀴어 이론의 반사회적 전회 속에서 주로 퀴어 부정성(queer negativity)의 스펙트럼에 대한 탐색에 주목해왔다. 가령 시민권 정치의 한계에 직면한 미국의 퀴어 이론은 동화주의적이고 예외주의적인 시민의 형상으로 퀴어 주체를 호명하는 데 극단적으로 반대하는 하나의 방식으로서 퀴어 이론의 반사회적 전회를 기획하였으며, 퀴어 부정성의 스펙트럼은 이의 한 방편으로 나타난 바 있다. 퀴어 부정성은 재생산 미래주의에 대한 비판 뿐 아니라 일체의 '생산적인 것'이라 규정되는 것들을 더 바람직한 것으로 강조하고 이론화하는 경향에 반대해왔다. 이는 퀴어 느낌들의 주제에서도 우울, 자기파괴, 수치심, 분노, 악의, 상실감, 슬픔, 지루함, 부적절함, 수치심, 무관심, 실망, 조바심, 광기, 과몰입, 앙심, 무책임, 불성실, 거리감, 죽음충동 등 할버스탬이 반사회적 주이상스라 부른[5] 정동들의 반사회적 아카이브의 중요성에 관심을 두는 것을 의미한다. 재생산, 성공, 일관성, 상속, 건강, 행복, 안전, 진보 같은 것들에 투여된 규범성과 정동체계가 비판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퀴어 자긍심(pride) 또는 퀴어 낙관주의(queer optimism)가 퀴어 주체 형상의 규범적 재현으로 이행하는 문제 또한 비판적 대상이 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퀴어 느낌들의 정치가 퀴어 부정성과 퀴어 긍정성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반사회적 아카이브의 퀴어 느낌들에만 투자하는 것은 아니다. 가령 스네디커(2009)는 애도와 멜랑꼴리, 게이 자긍심과 퀴어 수치심, 유토피아와 비유토피아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하면서 퀴어 낙관주의를

5 잭 할버스탬, 허원 역, 『실패의 기술과 퀴어 예술』, 현실문화, 2024, 228-345쪽 참조. 할버스탬은 퀴어 부정성의 아카이브가 확장되기를 원하며, 실패의 역사를 마조히즘적 몸에서 파시즘에 매혹된 동성애자까지를 포함하여 퀴어성, 여성성, 페미니즘을 가로지르며 집합시킨다.

고통에 직면하여 고통에도 불구하고 생존의 긍정이 어떻게 일어나야 하는지 질문하는 긍정의 실험으로, 즉 상상할 수 없는 미래가 아니라 그러한 모든 실험이 일어나야만 하는 현재의 유익한 위기에 정박해있는 것으로 이해하고자 한다.[6] 즉 퀴어 낙관주의는 행복을 열망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흥미롭게 여기는 태도로서, 긍정적인 정동들의 진지하고 흥미로운 비판적 탐구의 현장으로 여길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7] 이러한 퀴어 느낌들의 탐구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퀴어 이론의 아젠다로 호명되면서, 2023년 프라이드 먼스의 일부 주제가 되거나 2024년 말에 발간 예정인 학술지의 특집호 주제(mobilizing queer joy)나 다양한 분야의 연구들로 확산되면서 다양한 논쟁 지점들을 탐색해나가고 있는 형편이다.[8]

퀴어 즐거움의 논쟁적 요소들은 퀴어 즐거움의 정치적 역능과 관련하여 주체, 규범, 윤리의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먼저 주체의 측면에서는 퀴어 즐거움에 누가 접근할 수 있는지, 퀴어 즐거움을 보고 알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퀴어 즐거움을 표현하는 것이 타자에게 킬조이(killjoy)[9]가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질문한다. 다음으로 규범의 측면에서는 퀴어 즐거움이 규범적 재현과 어떻게 관계맺는지, 퀴어 즐거움의 개념적 틀 안에서 권력 관계는 어떻게 공유되고 이론화되는지, 퀴어 즐거움이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지, 퀴어 즐거움과

---

6 Michael D. Snediker, *Queer Optimism*, Minneapolis: Minnesota UP., 2009, p.25, p.218 참조. 스네디커가 주장하는 퀴어 낙관주의는 벌렌트가 비판한 잔혹한 낙관주의의 모델로부터 변별적 위치를 취한다. 이때 벌랜트의 잔혹한 낙관주의 모델은 "나중에라는 개념으로 지금 당장의 잔인함에 대한 질문을 유예하게 만드는 "인내의 기술"에 대한 사유"로서 ""좋은 삶"이라고 호명하는 대상에 대한 정동적 애착심"의 일상성과 정동적 현재성을 비판적으로 사유하기 위한 개념이다. 로런 벌랜트, 박미선·윤조원 역, 『잔인한 낙관』, 후마니타스, 2024, 54-55쪽 참조.

7 Michael D. Snediker, *op.cit.*, p.3.

8 근래 논의에서는 즐거움(joy)을 퀴어 연구가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주제로 간주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최근 연구의 언급으로는 Michael Tristano Jr, "Lingering Longer: Performance, Queer of Color Joy, and Baltimore's VERSION", *Sexualities*, 0(0), 2024, p.3. 이때 즐거움(joy)은 쾌락(Pleasure)이나 주이상스(Jouissance)의 이론적 맥락을 포괄하는 일상적 용례로서 즐거움을 호명한다.

9 킬조이는 분위기를 깨는 사람들, 행복 자체 뿐 아니라 행복의 환상을 위협하는 사람들이다. 사라 아메드(2023A), 앞의 책, 30쪽 참조.

관련하여 실패를 어떻게 이론화할 수 있는지 질문한다. 마지막으로 윤리의 측면에서는 퀴어 즐거움이 어떤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퀴어 즐거움을 윤리적으로 촉진하는 데 유용한 프로세스와 전략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한다.[10] 이러한 퀴어 즐거움의 주체, 규범, 윤리적 측면들은 퀴어 즐거움을 이해하고 의미화하며 서사적 사례들을 해석하는 데에 참조점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이처럼 주체와 규범 그리고 윤리의 질문들과 자질들을 포괄하며 현상하는 퀴어 즐거움의 양상을 김지연의 「사랑하는 일」과 「우리가 해변에서 주운 쓸모없는 것들」, 김멜라의 「저녁놀」, 김병운의 「어떤 소설은 이렇게 끝나기도 한다」, 「9월은 멀어진 사람을 위한 기도」, 「봄에는 더 잘해줘」, 「세월은 우리에게 어울려」, 이선진의 「나니나기」를 부분적으로 분석하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들 소설적 계열체들은 편안함을 살아내는 몸들의 일상에서 다르게 느끼는 정서 이방인들의 형상을 보여주면서, 규범화된 관계적 삶의 문법들에 대한 이격의 지점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또한 이 소설적 계열체들에서 퀴어 즐거움으로 독해될 수 있는 양상들은 삶의 느낌들을 재정의하고 규범에 대한 욕망과 위반과 협상과 차이의 순간들을 모의함으로써 친밀관계, 시간에 대한 인식, 정동체계 등으로 구성되는 다양한 규범적 생애 각본에의 투자에서 그 향배를 돌려 다른 삶의 가능성을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고는 이러한 과정성 속에서 구성되는 퀴어 즐거움의 가치와 정치적 역능에 대해 탐색함으로써, 퀴어 느낌의 서사 정치에 대한 탐구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2 관계적 삶의 규범을 심문하는 퀴어 즐거움

퀴어 즐거움은 최고로 행복한 순간들 뿐 아니라 가장 모욕적이고 역겨운 순간에서도 우리를 정동할 수 있다. 즐거움이 곧 기쁨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퀴어 즐거움은 깨어지는 순간에도 우리를 정동할 수 있게 하며, 즐거움의 실패나 성공은

10 본 질문들은 학술지 특집호 주제(mobilizing queer joy)의 개요문을 바탕으로 핵심적인 질문들을 요약한 것이다. 본 개요문은 https://wgsrf.com/downloads/mobilizing-queer-joy.pdf 참조.

편안함을 살아내는 몸[11]과 불화한다. 이러한 퀴어 즐거움의 미묘함은 퀴어 즐거움의 서사화 양상에 주목할 때 더 미묘해진다. 서사의 중층적 대화 구조는 퀴어 즐거움의 형성 지점을 스토리 세계의 레이어에 한정지을 수 없기 때문이다. 즐거움은 스토리 세계의 인물들 사이 또는 인물의 신체에서 표현될 수 있으며, 서술자에 의해 구성될 수도, 독자와의 의사소통 차원에서 (비)의도적으로 생성될 수도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퀴어 즐거움의 정동구조를 서사론적으로 해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퀴어 즐거움의 분석은 이를 해명하지 않으면서 포함한다는 점을 언급해둔다.

김지연의 「사랑하는 일」[12]은 원가족에게 커밍아웃을 한 지 오 년 가까이 되는 시점의 영지와 은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이 소설의 주된 이야기는 은호의 레즈비언 관계를 둘러싼 은호의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남동생 영호와 영호의 아내 현영의 반응과 이해 그리고 사랑하는 일을 둘러싼 은호의 원가족들의 관계적 삶에 대한 것이다.

이 소설에서 강력한 퀴어 즐거움의 순간들은 영지와 은호가 이성애규범적 사회와 이를 체현하는 가족들에게 처절한 비판을 하는 시퀀스들을 읽는 독자에게서 생성된다. 가령 다음의 두 인용문을 보자.

> “헤테로들 하여튼 섹스에 미쳐가지고, 음란해가지고, 사랑이라고 하면 성애적인 거부터 생각해서, 쟤들 어떻게 섹스할까부터 생각해서 그런 거잖아.”
>
> “우리 엄마가 그렇게까지…… 미친 사람은 아니거든.”(「사랑하는 일」, 226쪽)

> “아빠가 사랑에 대해 뭘 알아?”

11 아메드(2023B)는 편안함을 ‘몸은 해당 공간을 편안하게 살아낸다’로 설명하면서 편안함의 공간적 경험을 부각시킨다. 사라 아메드, 시우 역, 『감정의 문화정치』, 오월의봄, 2023, 319쪽 참조.

12 김지연, 「사랑하는 일」, 『마음에 없는 소리』, 문학동네, 2022, 225-253쪽. 이하 소설 인용 시 본문에 제목과 쪽수만 병기한다.

내가 따지듯 묻자 아빠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가 이내 크게 소리쳤다.

"내가…… 내가 왜 몰라!"

술에 취해 눈이 반쯤 풀린 모습이 정말 사랑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이었다. 말을 더듬는 이유도 그 사실을 들켜서 뜨끔한 것이 분명했다.

"어떻게 알아? 엄마랑 중매로 만나서 딱 두 번 보고 결혼했으면서. 두 번 만에 조건 보고 결혼 결정했으면서. 아니, 만나기도 전에 결혼은 거의 내정하고 만난 거면서! 내가 육 년 만난 여자친구랑 같이 산다는데 아빠가 왜 난리야. 뭘 얼마나 잘 안다고 간섭이야. 아빠는 나이 차는 대로 취직하고 결혼하고 애 낳고 남들 하는 거 따라 살았으면서 내가 죽도록 고민한 걸 왜 무시해. 나 진짜 죽으려고도 했어. 사는 거 너무 좆같아서. 근데 영지가 같이 살자고, 살아보자고 해서 살기로 한거야. 난 진짜 죽을 둥 살 둥 사는데 아빠가 뭘 안다고 사랑에 대해 말해! 아빠가 엄마를 사랑했어? 사랑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그래! 그렇다고 자식들한테 잘하길 했어, 할머니한테 효도를 했어? 씨발 진짜 아빠가 사랑에 대해 아는 게 뭐가 있어! 도대체 할 줄 아는 게 뭐야. 그게 무슨 사랑이야!"

아빠는 내가 하는 말을 제대로 듣기나 한 건지 훌쩍거리기 시작했다.

"아빤 엄마 사랑했어……."

진짜 꼴사나웠다.

"뭘 잘했다고 울어!" (…)

"그래도 아빤 우리 딸 사랑해."

"아, 진짜! 지랄하지 좀 마!" (…)

"너 진짜…… 패륜아 같았어."

영지는 전날의 만남을 그렇게 정리했다. 느지막이 잠에서 깨어 해장을 뭐로 해야 하나 고민하던 중이었다.

"뭔 소리야."

"강형식이 이놈! 이 사랑도 모르는 헤테로 놈! 꼴에 남들처럼은 살고 싶어서 사랑 없는 결혼 하고 사랑 없는 섹스 하고! 지는 지멋대로 다 살면서 굳이 나까지 낳아놓고! 나는 내 맘대로 살지도 못하게 하고!"(「사랑하는 일」, 244-247쪽)

첫 번째 인용문은 오 년 전 결혼 안 할 거면 마음에 맞는 친구와라도 같이 살라는 어머니의 말에 은호가 동성 애인이 있다고 커밍아웃을 한 이후, 어머니가 그 대화가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는 것에 대한 영지의 해석적 논평이다. 동성 애인과 함께 사는 것과 마음에 맞는 친구와 함께 사는 것이 무엇이 다른지 의문을 갖고 어머니의 행동을 어처구니 없어하는 은호를 달래기 위해 한 발화인데, 이 발화는 웃음을 유발시킨다. 흔히 '동성애자들은 성중독자다' 같은 혐오 논리를 역전하여 누가 누구와 섹스하는지에만 관심이 있고 성애중심적인 관념을 갖고 있는 것은 오히려 이성애자들이라는 것이다. 이 서술을 읽는 데서 즐거움이 생성되는 것은 이성애규범적임과 동시에 성애중심적인 방식으로 구조화된 친밀관계가 동성애적 관계를 재현하는 스테레오타입과 권력 관계를 형상화함과 동시에 전복적으로 패러디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인용문은 은호가 영지와 함께 자신의 아버지에게 인사를 가서 함께 술을 마시는 장면이다. 은호와 영지가 함께 하는 동안 은호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오랜 각방 생활 끝에 이혼절차를 마치게 된다. 은호의 아버지는 영호가 결혼을 할 때 그랬던 것처럼 은호가 '시집 가면' 증여하려고 했던 집을 증여하기 전에 파트너를 소개하는 자리를 만들고자 한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은호는 사회의 시선과 시기상조를 말하는 아버지를 대판 비난하면서 인용과 같이 싸운다. 이 시퀀스는 강력한 즐거움을 형성하는데, 이는 동성애적 관계를 비평할 권리를 가졌다고 생각하는 이성애자들의 이성애적 관계를 비난하면서 '사랑을 모르는 놈이 바로 네놈'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권력의 낙차를 형상화함과 동시에 위반하면서 전복적으로 패러디하는 반복되는 시퀀스들이 김지연의 「사랑하는 일」에서 주요한 퀴어 즐거움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며, 이는 규범을 심문하는 퀴어 즐거움의 한 사례로 이해될 수 있다.

실제로 이 소설에서 이처럼 이성애중심적 규범을 심문하는 퀴어 즐거움은 '사랑하는 일'이라는 소설의 제목이 표상하듯 사랑하는 '일'에는 모두가 미달하는 세계관을 보여주는데, 이러한 세계관 속에서 서로의 관계에 대해 비난하고 논평하고 싸우는 사람들의 모습은 진지하기보다는 상당히 하찮은 느낌을 수반한다. 이 소설에서 퀴어 즐거움은 이 하찮음의 낙차를 탐색하게 하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 커밍아웃했을 때 할머니는 내게 저년 저 돌은 년, 정신 나간 년, 나사 빠진 년, 하며 욕이란 욕은 다 했다. 평생 저렇게 이기적으로 살다가 나중에 다 돌려받을 거라고 했다. 길 가다 돌에 처맞아 죽지 않으면 다행일 거라고 했다. 어떻게든 살아남아봤자 결국 혼자서 외롭게 죽을 거라고도 했다.(「사랑하는 일」, 237쪽)

「사랑하는 일」에서 재현되는 친밀관계들은 모두 하찮게 삐걱대는데, 위 인용문에서 나의 친밀관계에 대해 (너는 실패할 것이며) '결국 혼자서 외롭게 죽을 거라고' 저주하는 할머니의 말은 특별한 구속력을 가지지 못한다. 왜냐하면 은호와 영지의 관계 뿐 아니라 모든 친밀관계들이 그러하기 때문이다. 이 소설에서 은호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오랫동안 각방을 쓰다가 이혼한다. 이성애적 관계의 제도화를 통해 만들어진 은호의 가족 또한 흔히들 하는 "자식들에 대해 제일 모르는 사람이 부모라잖아? 그 반대도 마찬가지야. 원래 가족들은 서로서로 잘 몰라. 너무 잘 알아도 이상하지."(「사랑하는 일」, 226쪽) 같은 말처럼 서로 어떤 사람인지 잘 알지 못한다. 영호는 현영과 혼전임신 후 결혼해서 살지만, 현영은 영호가 만날 때부터 집안일을 잘 하지 않았다며 은호에게 "언닌 진짜 좋겠어요. 한남이랑 결혼할 일은 없잖아요. 최고로 부러워. 저도 여자나 만날 수 있었으면 했다니까요."(「사랑하는 일」, 233쪽)라고 말한다. 동성애자와 동성애문화에 대한 규범적 재현이 이성애자와 이성애문화에 대한 어떤 설명도 하지 않으면서 그 반대급부로 무표화된 이성애문화를 증명하는 사회에서, 모두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친밀관계들의 집합은 이성애자와 이성애문화에 기반한 증명된 것으로 여겨지는 친밀관계의 규범적 재현을 웃기게 만든다.

이 소설에서는 이성애문화에 기반한 친밀관계의 규범적 재현 뿐 아니라 동성애적 친밀관계 또한 위기를 노출한다. 은호와 영지는 오랫동안 섹스리스로 살면서 연애가 성애를 기반해야 하는지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을 드러내는데, 그러면 오픈릴레이션십을 하라는 영지의 말에 은호는 연애를 하지만 외로움을 느끼고 영지도 사랑 같은 게 뭔지 모르겠다고 말한다. 친밀관계를 어떤 대상과 구성하는지와는 상관 없이 사랑하는 일과 사랑하는 관계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 즉 "관계 증명"(「사랑하는 일」, 229쪽)이란 매우 모호한 것이다. 요컨대 「사랑하

는 일」에서 강력한 퀴어 즐거움을 반복적으로 생성하는 것은 전복과 위반을 통한 이성애규범성과 이성애규범적 사회에 대한 패러디의 비판적 즐거움이지만, 이 즐거움이 겨냥하는 것은 이성애자와 이성애문화에 대한 규범적 재현을 넘어 '사랑하는 일'을 필두로 동성애적 친밀관계를 포함한 모든 친밀관계의 실제를 하찮은 위기와 불확실성 그리고 증명불가능성이 항상 함께하는 관계적 일상이다. 이성애규범성에 적법한 주체가 부재할뿐더러 사랑하는 '일'에 모두가 미달하는 세계를 보여주는 이 소설에서 퀴어 즐거움은 이 하찮음의 낙차를 통해 관계적 규범의 권력관계와 그 압력을 상대화하는 효과를 낳는다.

이처럼 김지연의 「사랑하는 일」이 규범을 심문하는 퀴어 즐거움의 한 사례로 있다면, 김병운의 「봄에는 더 잘해줘」[13] 역시 규범의 문제에서 논의될 만한 소설이다. 앞선 소설에서 규범의 심문이 전방위적인 것이었다면, 이 소설은 특히 게이 친밀성을 구축하고 있는 '나'가 규범적 욕망으로 정향하는 데서 오는 퀴어 즐거움을 현상하고 그와 동시에 그 퀴어 즐거움이 실패하는 순간을 모의한다는 점에서 흥미롭게 살펴볼 수 있다.

「봄에는 더 잘해줘」는 어머니에게 파트너인 영묵씨를 소개하고, 집에서 같이 먹고 자고 가는 등 자신의 친밀관계를 인정받음과 동시에 이 친밀관계를 어머니와 함께인 가족으로 구성하고자 노력하는 '나'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이 소설에서 '나'는 어머니가 '나'의 파트너를 이름으로 부를 때마다 여전히 벅찬 기분을 느끼지만 "그런 건 너무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것처럼"(「봄에는 더 잘해줘」, 78쪽) 하고 싶은 인물이다. 그 까닭은 어머니가 파트너의 이름을 부를 때, 그것은 친밀한 존재에게 '나'의 존재의 일부를 인정받음과 동시에 세상에 수용되는 감각을 일깨우기 때문이다. 이 소설에서 '나'는 영묵씨가 '나'와 어머니의 집에 다녀갈 때마다, 가까워지려고 서로 노력할 때마다 그것이 "진부하고 소중한 욕망"(「봄에는 더 잘해줘」, 82쪽)인지 알면서도 동시에 이를 원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이, '나'는 이성애규범적 돌봄관계에 기초한 하나의 모델만이 있는 이 가족돌봄의 보편적 구도 내 돌봄회로에 진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 소설 속에서 퀴어 즐거움의 순간은 영묵씨와 '나'의 파트너십을

13 김병운, 「봄에는 더 잘해줘」, 『현대문학』 2024년 1월호, 현대문학, 2024, 60-85쪽.

어머니에게 인정받아, 영묵씨와 '나'와 엄마로 구성된 친밀성의 가족적 세계(이자 미래)를 그리는 인물 서술자 '나'의 시각에 의해 매개된 시퀀스들에서 생성된다. '나'의 퀴어 즐거움을 생성하는 이 순간들은 '진부하고 소중한 욕망'이라는 표현에서 잘 드러나듯이, '나'가 여타의 이성애적 친밀관계들이 그러하듯 동일하게 파트너인 영묵씨와 '나'의 친밀관계를 원가족에게 인정받고 함께 가족이 되며 그럼으로써 영묵씨와 영구적인 관계가 되어 가족을 구성하고 살아갈 미래를 낙관주의적으로 희망하는 데서 비롯된다. 퀴어 인구는 세계내재적이며 그렇기 때문에 퀴어 인구의 욕망 또한 규범으로 정향되기 마련임과 동시에, 오염되지 않은 욕망을 찾는 것은 이론 너머에서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문제는 이 소설이 이러한 규범적 욕망으로 정향하는 퀴어 친밀성이 퀴어 즐거움을 현상함과 동시에, 그것이 처참하게 실패하는 순간 또한 묘사한다는 데 있다. 다음의 인용문을 보자.

요즘 애기들이 참 예쁜 것 같아.

내가 등 뒤로 점점 멀어지는 두 사람을 돌아보며 말했고,

요즘 애기들만 예쁜가. 옛날 애기들도 예뻤지.

엄마가 나를 힐끗 보며 말했다.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요즘 그렇다고. 전에는 관심도 없었는데 이제는 길에서 애기들 보면 넋이 나간다니까.

나는 언젠가부터 헐벗은 남자들 사진보다 귀여운 아기들 영상이 더 많이 뜨는 내 인스타그램 피드를 떠올렸다.

늙어서 그래. 너도 자식이 있어도 이상하지 않은 나이가 됐으니까.

……그런 건가?

없어도 이상하진 않고.

……응.

잠시 어색한 정적이 흘렀고(「봄에는 더 잘해줘」, 77쪽)

산책을 마치고 다시 공원 정문으로 돌아왔을 때, 엄마가 바리케이드 앞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집에 가시는구나, 하고 먼저 말을 걸었다. 누군데 알은체를 하나 싶어 자세히 봤더니 아까 잔디밭에서 걸음마 연습을

하던 아기와 아기 엄마였다. 아기는 이제 엄마 품에 안겨 쪽쪽이를 빨고 있었고, 아기 아빠로 보이는 내 또래의 남자가 그 옆에서 유모차를 접고 있었다. 아기 엄마가 먼저 가시라며 길을 비켜주었지만 우리는 그 자리에 잠시 멈춰 서서 아기를 보았다.

천사처럼 예뻐요.

공원 밖으로 나가기 전, 엄마가 호기심이 가득한 눈으로 봄밤을 구경 중인 아기에게 말했다. 그리고 이어서 감사합니다, 하고 대신 인사를 하는 아기 엄마에게 덧붙였다.

엄마는 더 예쁘고요.(「봄에는 더 잘해줘」, 80-81쪽)

'나'는 요즘 부쩍 아기가 예뻐보이는데, 이는 은연중에 이성애규범적 친밀성에 기반한 생애주기의 구성소인 아이와 함께 하는 삶에 대한 '나'의 욕망을 드러내기도 한다. '나'는 어머니와 함께 산책하다가 젊은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아기로 구성된 가족이 공원에서 즐거운 시간을 갖는 모습을 보게 된다. '나'의 어머니가 영묵씨와의 관계에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은 서사적 현재의 '나'에게 '나'가 꿈꾸는 "세상에서 훔쳐낸 각본"(「봄에는 더 잘해줘」, 82쪽)이 미래에는 가능할 것 같은 낙관주의적 희망을 준다. 하지만 소설은 이와 동시에 앞선 인용문에서 길거리의 아이를 바라보는 시퀀스에서 어머니와 '나' 사이의 어쩔 수 없는 간극을 미묘하게 포착한다.

이 시퀀스에서 아이와 함께 동반하는 가족의 정경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아기 아빠와 아기 엄마 그리고 아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머니는 아이와 아이 엄마가 천사처럼 예쁘다고 말한다. 이 순간은 '세상에서 훔쳐낸 각본'처럼 '나'와 어머니와 영묵씨 사이를 친밀관계로 구성하다가도, 어느 순간 가족돌봄의 구도 내 돌봄회로가 현상하는 풍경을 일종의 천사처럼 예쁜 것으로 볼 수 있는 관점의 원천적 시차에 의해 찢어지는 찰나다. 이 순간은 '나'를 순식간에 정서 이방인으로 만듦과 동시에 '나'의 즐거움이 기반하고 생성되는 토대를 무너뜨리는 순간이기도 한데, 이 순간을 통해 드러나는 퀴어 즐거움의 실패는 '나'의 즐거움을 구성하는 시퀀스와 그에 투사된 규범에의 정향 속 이성애적 생식과 가족구성 및 가족돌봄의 구도 내 회로를 독자로 하여금 '나'의 시선 바깥에서 조망하게 만든다.

그런데 퀴어 즐거움의 실패는 이 소설에서 동성애적 친밀관계의 박탈을 더 강력하게 표상하고 강조하는 데 쓰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이 실패는 영묵씨와 '나'의 파트너십을 어머니에게 인정받고 그럼으로써 영묵씨와 '나'와 엄마로 구성된 친밀성의 가족적 세계라는 미래를 그리는 인물 서술자 '나'의 행복에 대한 표상과 그로 인해 유발된 즐거움의 느낌의 이면을 주시하게 한다. '나'는 영묵씨와의 안정된 친밀관계를 안심하면서도 두려워하며, 이는 크루징과 번개모임 그리고 장기적 관계의 어려움과 익명성의 고단함 및 일시성이 상시화되어 있는 게이 친밀성의 세계로 회귀하지 않기 위함이다.[14] '좋은 삶'의 미래로 그럭저럭 갈 수 있을 것 같은 희망고문과 동시에 현재의 지속적 위기를 관리하면서 관계를 조율해야 하는 '나'의 현재는 좋은 삶이 표상하는 의심스러운 낙관주의의 미래를 위해 현재의 자원과 정동을 투자하는 친밀관계의 경영으로 나타난다. 영묵씨에게 너무 잘해주지 말면서 동시에 더 잘해주라고 하는 모순된 '나'의 표현들은 좋은 삶의 약속이라는 미래를 위한 '나'의 현재적 경영 이면에 지속되는 불안을 상기시킨다. 소설의 말미에서 이러한 '나'의 불안의 지속되는 현존은 엄마와 '나'의 집에서 자고 있는 영묵씨의 입 구멍에 손가락을 넣은 '나'가 영묵씨에게 앙 물리는 장면으로 끝나게 되는데, 이 현존의 순간이 의심스러운 낙관주의로부터 인물 서술자인 '나'의 즐거움이 생성되는 순간을 넘어 독자로 하여금 '나'가 영묵씨에게 귀엽게 물리는 순간에서 생성되는 즐거움의 시퀀스를 현재의 행복으로 되돌려놓는다. 「봄에는 더 잘해줘」에서 '나'의 시각으로부터 구성된 퀴어 즐거움의 생성과 실패의 순간들은 함께 모의되고, 마지막 시퀀스에서 다시금 생성되는 현재적 순간에서의 퀴어 즐거움으로 이행함으로써 이 실패를 박탈이 아니라 의심스러운 낙관주의에 대한 점검으로 향하게 한다.

김지연의 「사랑하는 일」과 김병운의 「봄에는 더 잘해줘」가 이처럼 퀴어 즐거움을 통해 편안함을 살아내는 몸들을 그 편안함의 구성적 스케일들의 가시화로 이끌면서 규범을 심문하는 자리로 독자를 이끈다면, 김병운의 「9월은 멀어진 사람을 위한 기도」[15]는 단 한 번의 퀴어 즐거움의 시퀀스를 매개하면서 애도가능

14 이 소설에서 이러한 맥락은 78쪽의 부분에서 일부 암시되며, 이는 김병운의 소설세계에서 친밀성의 주제가 현상될 때 인물들이 주로 노정되는 정동적, 시간적 좌표이기도 하다.

성과 애도불가능성 사이를 구획하고 가로막는 잔혹한 낙관주의와 규범적 친밀성을 허물어뜨리면서 성찰하게 하는 데로 인도한다.

> 할머니의 봉안함은 B구역 중간쯤이었다. 출입구에서 바라봤을 때 오른편이었고, 흡사 물품 보관함처럼 보이기도 하는 직사각의 돌기둥이 할머니가 입주해 있는 단지였다. 할머니의 명패에 쌓인 먼지를 검지로 쓱 훑어 내는데 흙이 말했다.
>
> 할머니 성이 원씨였구나.
>
> 응, 원씨.
>
> 원할머니였네. 보쌈을 좋아하셨나?
>
> …….
>
> 나는 이런 건 진짜 웃어 주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하면서도 결국 피식 웃고 말았고, 입꼬리를 끌어올린 채 뿌듯해하는 흙을 애써 무시하며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았다.(「9월은 멀어진 사람을 위한 기도」, 201쪽)

위 인용문은 이 소설에서 단 한 번 나타나는 퀴어 즐거움의 시퀀스를 보여준다. 흙과 '나'가 '나'의 할머니가 봉안된 납골당에 인사를 가는 부분인데, '나'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흙이 던진 농담이다. 사실 이 소설은 즐거움의 퀴어 느낌을 소설 전체에서 지속적으로 매개하는 편은 아니다. 오히려 이 소설의 대부분은 게이 커뮤니티에서 사라진 물의 삶에 대한 '나'의 고통스럽고 복합적이며 과포화된 내적 갈등을 매개하는 데 치중되어 있다. '나'에 의해 회상되는 물의 삶과 물의 죽음은 "혐오와 비난, 배제와 박탈, 우울과 고립, 질병과 고통, 그리고 성소수자와 자살"(「9월은 멀어진 사람을 위한 기도」, 204쪽)으로 요약되는 우리에게는 "익숙한 몇 가지 키워드"(「9월은 멀어진 사람을 위한 기도」, 204쪽)로 표상된다.

---

15 김병운, 「9월은 멀어진 사람을 위한 기도」, 『기다릴 때 우리가 하는 말들』, 민음사, 2022, 171-209쪽.

물은 문란해서 죽은 게 아니다.
물은 불안해서 죽은 게 아니다.
물은 무력해서 죽은 게 아니다.
물은 슬퍼서 죽은 게 아니다.
물은 화가 나서 죽은 게 아니다.
물은 외로워서 죽은 게 아니다.
물은 게이여서 죽은 게 아니다.
하지만 이런 인과관계를 끊어 내려는 노력은 나에게 또 다른 질문을 남겼다. 어째서 나는 물의 죽음을 무결한 것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가. 어째서 나는 불온해 보이는 것들은 모조리 지우려 하는 것이며 게이는 다 그렇게 사는 것도 아니고 다 그렇게 죽는 것도 아니라고 해명하고 싶어하는가. 내가 자기 검열을 반복하며 끊임없이 의식하고 있는 시선의 주인은 도대체 누구이고, 그 시선으로부터 허락받기 위해 밀어내거나 끊어내는 사람은 또 누구인가.(「9월은 멀어진 사람을 위한 기도」, 205쪽)

이 소설에서 '나'가 좋은 삶의 미래적 시간성으로 정향하기 위해 크루징하는 물을 흙과 비교하여 비정상성 중의 하위주체로 다시금 물을 위치시킬 때, 물은 좋은 삶의 미래적 시간성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는 현재의 위기 관리에 대한 실패의 징후를 드러내는 위 몇 가지의 우리에게 익숙한 하위문화의 키워드들의 추측을 경유하여 부고로 '나'에게 당도한다. '나'는 봉안실에서 흙과 함께 할머니를 조문하면서, 물의 아버지가 무빈소 장례와 장지조차도 비밀에 부친 일에 대해 생각한다. 여기에서 물의 죽음은 애도의 이중적 금지 상태로 표상된다. 물의 '문란한' 죽음은 친족에 의해 상실에 의한 슬픔을 성원이 공유할 수 있는 애도의 절차를 금지 당했다. 또한 게이인 물의 죽음은 게이 커뮤니티의 하위주체이자 좋은 삶에 대한 영원한 퀴어 박탈을 '불길하게' 표상한다는 점에서 애도의 부인이 행해진다. 누구의 죽음이 애도될 만한 죽음으로 여겨지는지를 질문하는 인식론적 투쟁에서 '나'와 흙이 할머니를 자연스럽게 애도하고 위령 기도문을 욀 수 있는 것과 달리(그조차도 흙은 '나'에게 자신이 할머니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는, 애도하는 주체의 자격을 갖는지 머뭇거린다), 물은 이중의 박탈됨 속에 배정된다. 물

의 죽음은 코로나19 당시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에서 용인 66번으로 지목된 게이와 아웃팅의 시간성과 병렬되면서 에이즈 위기의 과거를, 미래의 감염병을 뒤섞는 시간성을 암시하기도 한다.

원할머니 보쌈 농담은 '나'의 내적 갈등, 즉 문란하고 비규범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물의 크루징과 게이 문화에 대한 '나'의 공포와 두려움, 물의 죽음 이전에 물에게 응답하지 못하고 외면했다는 죄책감, 물이 죽자 물의 아버지가 취한 애도 금지 조치와 그에 따른 애도불가능성에 대한 슬픔, 흙과의 장기적 관계에서 좋은 삶의 미래로 그럭저럭 갈 수 있을 것 같은 희망고문과 동시에 물과 같은 처지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 현재의 지속적 위기와 현재의 연장된 시간성을 관리해야 하는 압박감, 자신이 할머니를 조문하고 애도할 수 있는 적법한 주체인지를 질문하는 흙과 흙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고 싶다는 '나'의 마음, '나'와 같이 흙 또한 '나'와 물이 어디서 만난 건지 그래서 '나'와 물의 관계를 캐물음으로써 '나'도 물처럼 일종의 전락한 친밀관계를 한 적이 있는 건지를 의심하는 듯한 뉘앙스와 함께 '나'를 위기화하는 것에 대한 분노와 두려움, '나'와 흙 모두가 물의 죽음에 연루되어 있거나 일조한 것이 아닌지 하는 의문과 죄책감 등을 일시적으로 유예하거나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자면 허물어뜨리는 퀴어 즐거움의 일시적 순간으로 나타난다.

이때에 '나'의 현재에서 고통스럽고 복합적이며 과포화된 내적 갈등은 단 한 번의 퀴어 즐거움의 시퀀스를 통해 이중적 애도의 시퀀스로 향한다. '나'가 준비한 할머니에 대한 위령 기도문은 두 번 읽히는데, 한 번이 '나'의 할머니를 위한 것이었다면, 두 번째의 기도는 물에게 닿지 못할 지라도 '나'와 흙을 포함하여 물을 향한 것이 된다. 「9월은 멀어진 사람을 위한 기도」에서 퀴어 즐거움은 애도불가능성에서 애도가능성으로 향하는 여정에서, 이 사이를 구획하고 가로막고 있는 잔혹한 낙관주의와 규범적 친밀성이 물을 애도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넘어서 '혐오와 비난, 배제와 박탈, 우울과 고립, 질병과 고통, 그리고 성소수자와 자살'이라는 퀴어 인구에 대한 규범적 재현과 정동을 애도하는 것을 부인하게 할 뿐 아니라 끝내는 애도불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성찰하게 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장에서 퀴어 즐거움의 서사화는 소설의 사례들이 보여주는 퀴어 즐거움의 위반적 측면들로 나타난다. 이는 퀴어 즐거움의 논제에서 규범

과 주체의 질문들을 함유하는 다양한 서사들(김지연의 「사랑하는 일」, 김병운의 「봄에는 더 잘해줘」와 「9월은 멀어진 사람을 위한 기도」)을 통해, 편안함을 살아내는 몸의 잠재된 구성소들을 가시화하고 재협상하는 정서 이방인으로서의 인물들의 서사를 보여준다. 소설들은 이러한 즐거움이 생성되는 여러 층위에서 때로는 충돌과 실패, 소외와 재협상을 통해 우리의 삶을 구획짓고 정동하게 하며 우리의 퀴어 느낌들을 생성하고 좌절시키는 관계적 규범들을 탐색하게 하고, 이러한 규범화와 특권화에 대한 위반으로부터 저항과 협상의 정도적 스펙트럼으로 향하는 경로에서 퀴어 즐거움을 동원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3 좋은/살만한 삶의 느낌들을 재정의하기

퀴어 즐거움의 서사화는 관계적 규범들에 대한 위반에 동반되거나 이를 인식하게 하는 것을 넘어, 퀴어 즐거움을 좋은 삶 내지는 살만한 삶(livable life)[16]의 다른 가능성을 탐색하는 계기이자 그 자원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이는 퀴어 즐거움에 대한 규범과 주체의 질문에서 윤리의 질문으로 나아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 장에서는 김병운의 「어떤 소설은 이렇게 끝나기도 한다」[17]와 이선진의 「나니나기」[18], 김지연의 「우리가 해변에서 주운 쓸모없는 것들」[19], 김병운의 「세월은 우리에게 어울려」[20], 김멜라의 「저녁놀」[21]을 통해 퀴어 즐거움의 이러한 대안적 측

16 버틀러는 살 수 없는 삶(unlivable life)와 살만한 삶(livable life)을 가로지르는 차이에 대해 질문하면서, 취약성을 극복할 수 있다는 환상으로부터 벗어나 삶의 취약성과 상호의존성을 성찰하고 생명의 삶의 조건을 급진적 평등의 언어로 다시 쓰기를, 이를 정치의 중심에 놓기를 요청한다. Judith Butler & Frédéric Worms, *The Livable and The Unlivable*, New York: Fordham UP., 2023. pp.48-60.

17 김병운, 「어떤 소설은 이렇게 끝나기도 한다」, 『기다릴 때 우리가 하는 말들』, 민음사, 2022, 249-299쪽.

18 이선진, 「나니나기」, 『밤의 반만이라도』, 자음과모음, 2024, 49-80쪽.

19 김지연, 「우리가 해변에서 주운 쓸모없는 것들」, 『마음에 없는 소리』, 문학동네, 2022, 9-38쪽.

20 김병운, 「세월은 우리에게 어울려」, 『자음과 모음』 2022년 겨울호, 자음과모음, 2022, 219-238쪽.

21 김멜라, 「저녁놀」, 『제 꿈 꾸세요』, 문학동네, 2022, 95-136쪽.

면들을 살펴볼 것이다.

김병운의 「어떤 소설은 이렇게 끝나기도 한다」에서 퀴어 즐거움의 시퀀스는 '나'의 어머니에게 커밍아웃을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는 착종된 상황 속에서 '나'의 무의식이 말실수로 '나'를 고백하는 장면에서 나온다.

> 나는 처음에는 무슨 그런 생떼를 쓰느냐며 어이없어 했으나, 어느 순간부터는 나도 모르게 감자 반 고구마 반이 담긴 커다란 상자를 떠올리게 됐다. 그리고 감자와 고구마라면 5대 5보다는 7대 3이나 8대 2 정도가 적당한 것 같다고, 아니, 어렸을 때부터 한결같은 '감자파'인 나로서는 역시나 고구마는 3이나 2도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다가 무심결에 엄마 앞에서 말실수를 하고 말았다.
>
> 엄마.
>
> 응.
>
> 나는 그래도 고구마보다는 남자가 더 좋더라. 아니, 감자가…….
>
> …….
>
> …….
>
> 아, 빌어먹을 나의 무의식.(「어떤 소설은 이렇게 끝나기도 한다」, 251-252쪽)

이 소설은 전반적으로 게이 작가인 '나'의 정체성과 커밍아웃에 대한 고민들을 서술하고 있다. 정체성에 대해 커밍아웃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누구에게 어디까지 할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이며 어디까지 말할 것인지, 어떻게 말할 것이며 어떤 방식으로 말할 것인지 등 커밍아웃은 성적 소수자에게 매우 익숙하면서도 딜레마적인 것으로 체험되곤 한다. '나'는 이러한 딜레마를 위장(커버링)에 대한 고민과 함께 서술하는데, "이런 식의 위장은 너무 익숙해서 그다지 어려운 일도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애초에 아무것도 알리지 않는 쪽을 택했다. 솔직하지 못할 바엔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는 편이 낫다는 걸, 어떤 거짓말은 예외 없이 나를 훼손한다는 걸 나는 모르지 않았다."(「어떤 소설은 이렇게 끝나기도 한다」, 273쪽)와 같은 식이다. 성적 소수자에게 커밍아웃과 커

버링은 일상 속에서 상시적으로 경험하는 다양한 종류의 미세공격을 차단하고자 하는 시도임과 동시에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처세술이기도 하다.

더 큰 문제는 어머니와 동거하는 '나'에게 있어서 '나'의 게이 정체성을 밝히는 것에 대한 고민이다. 원가족에 대한 커밍아웃은 가족자원이 박탈되는 경로로 흐를 수 있으며, 커밍아웃이 받아들여지더라도 대개는 부정적인 방식으로 새로운 관계의 경로가 조성될 수 있기에 이는 어려운 문제다. '나'는 이런 여러 고민 속에서 계속해서 어머니에게 말하는 것을 망설이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위의 인용문의 말실수의 대화가 제시된다. 이런 망한 커밍아웃의 순간은 웃음을 줄 뿐 아니라, 공감과 함께 독자에게도 즐거움의 퀴어 느낌이 생성되도록 돕는다. 이는 소설 속에서 그것이 알고자 하지 않는 완고함이나 에두른 거부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사실 '나'의 어머니가 '나'가 게이라는 것을 눈치껏 알고 있었다는 것을 '나'의 서술을 통해 알게 될 때, 영원하거나 종결된(될) 커밍아웃 같은 것은 없다는 것을, 커밍아웃 뿐 아니라 퀴어한 몸이 편안함을 경험하는 몸으로 향하지 않을(향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깨닫게 한다. 이 깨달음은 퀴어 즐거움이 퀴어한 몸의 상태를 받아들이고 언젠가 커밍아웃이 종결될 미래가 아닌 현재에 주목하여, 반복되는 현재성과 삶으로서의 현재적 긴장을 긍정하고 이를 즐거움의 자원으로 인식하게 만든다.

이러한 현재에 대한 퀴어 느낌과 시간성의 인식적 매개로서의 퀴어 즐거움은 이선진의 「나니나기」에서도 나타나는데, 이 소설은 매순간 웃기고 퀴어 즐거움의 시퀀스 또한 거의 매순간 계속해서 쉴 새 없이 등장한다. 하지만 이 소설이 서사화하는 나니와 연휘의 삶과 그 조건은 일반적으로 즐거울 거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운, 즐거움과는 동떨어져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들 레즈비언 연인은 별점도 안 좋고 맛도 평범한 비좁아터진 작은 죽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좁은 집에 살면서 마이너스 통장의 잔고를 걱정하고, 하고 싶었던 음악도 망하고 전공도 못 살린 그저그런 "대충 살자"(「나니나기」, 57쪽)면서도 "대충 살기 위해 애썼다"(「나니나기」, 57쪽)라고 할 수 있는 애써야 하는 사람들이다.

> 희망의 반대말이 뭐일지도 궁금했는데 잘 떠오르지 않았다. 멸망은 너무 무겁고 체념은 너무 가볍게 느껴졌다.(「나니나기」, 54쪽)

나는 진짜 글러먹었나 봐.

나니야.

짧고 낮은 소리로 연휘가 나를 불렀다.

지금부터 당신을 언밸런싱 아티스트로 임명합니다.

뭐야 그게. 별 같잖은 소리에 웃음이 나는 걸 보니 내가 연휘를 많이 좋아하긴 하는 것 같았다.

내리막길을 조금 내려왔을 뿐인데 땀이 났다. 롱 패딩을 입으면 덥고 벗으면 추웠다. 그걸 무한 반복했다. 뭐 했다고 어느새 해가 지려고 했다. 혹시 희망의 반대말이 뭔지 알아? 내가 묻자 연휘가 1초의 고민도 없이 말했다. 망희 아니야? 물어본 내가 바보지, 하면서도 나는 물어보길 잘했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산 초입 구멍가게에서 게토레이를 사 먹었다. 연휘는 게토레이를 자꾸만 개또라이라고 발음했다.(「나니나기」, 72-73쪽)

있지,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집이랑 너무 멀었잖아. 환승 막 세 번씩 해야 됐잖아. 사람이 어찌나 많은지 집 오면 완전 녹초 돼 있고.

응응 그랬지.

그래도 그땐 지금보다 따뜻했던 것 같애.

나니야.

응.

나는 지금 이대로도 괜찮은 것 같애.

그 말이 뭐라고 괜히 눈물이 나왔다. 하품으로 도저히 감출 수 없는 양이었다. 나는 눈물 콧물 다 짜내면서 '맛있으면 짖는 개'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간다고 했다. 네 요리 솜씨가 진짜 형편없기는 하다고.(「나니나기」, 77쪽)

나니와 연휘가 이 소설 속에서 시종일관 매개하는 이 자조적이면서도 웃긴 느낌은 매우 익숙한 퀴어 하위문화의 정동을 동반하고 또 상기시키는데, 왜냐하면 퀴어 하위문화와 이를 공유하는 사람들은 앞선 서론에서 할버스탬이 반사회적 주

이상스라고 호명하고 아카이브를 구축하고자 했던 것처럼 우울, 자기파괴, 수치심, 분노, 악의, 상실감, 슬픔, 지루함, 부적절함, 수치심, 무관심, 실망, 조바심, 광기, 과몰입, 앙심, 무책임, 불성실, 거리감, 죽음충동 같은 퀴어 느낌들을 정동자원화하여 저급하게 공유하고 즐기는 것을 그리 터부시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퀴어 느낌들은 덜어내거나 지양해야 할 것들이거나 우리를 오염시키는 더러운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익숙하게 경험하고 결국 함께 거주해야 할 느낌들로 인식되곤 한다. 따라서 이 소설에서 나니와 연휘가 향유하는 퀴어 즐거움의 시퀀스들과 나니와 연휘의 현재적 삶이 보여주는 낙차가 계속해서 동반되는 서사적 경험은 나니와 연휘가 주고받으며 독자에게 매개하는 이 퀴어 즐거움들을 결코 편안할 수 없으면서도 편안하게 하고, 그래서 나니와 연휘는 퀴어 즐거움을 어느 상황에서든 발굴하는 정동확산자로 이해된다.

중요한 것은 나니와 연휘가 살고 있는 시공간이 "즐거움을 소유물의 형태로 분배하는 경제"[22]를 보여주는 한편, 나니와 연휘의 죽 쑤는 유머들은 이러한 즐거움의 소유 경제에 도전한다는 점이다. 위의 인용문들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처럼 나니의 끊임없는 불평과 블랙유머, 연휘의 끊임없는 말도 안 되는 말장난과 말도 안 되게 긍정적인 해석들은 사람들은 서비스를 줘도 별점 테러를 하고, 버스 요금은 부족하고, 버스도 잘못 탔으며, 개가 도로로 튀어나오고, 귀지가 낀 한쪽 이어폰을 누가 훔쳐가고, 내가 사랑하는 여자는 나이 많은 남교수를 사랑하면서 나에게 질투하고, 이에 앙심을 품은 나는 교수의 개를 훔치고, 죽도 맛있게 못 쑤고, 연인에게 때로 막말을 해서 상처입히고, 사려는 뽀뽀이도 없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누구 잘못이라고 하기도 뭐했지만 전반적으로 망한 느낌의, 나니와 연휘의 현재적 삶과 이들이 매개하는 즐거움의 정동 사이에서 독자가 낙차를 경험하는 순간들로부터 즐거움이 특정한 상황 속에서만 가능한 것인지를 질문하게 한다.

「나니나기」에서 즐거움의 소유 경제와 그 지배적 논리가 노 교수의 단어 뜻 교정해주기를 넘어 삶의 현재적 순간들을 계속해서 교정하고자 할 때, 나니와 연휘는 이러한 교정으로부터 실패한 것으로 판명되는 곳곳의 순간들을 즐거움으로

22 사라 아메드(2023B), 앞의 책, 350쪽.

되받아치면서 지금 이대로도 괜찮은 현재라는 퀴어 느낌을 유포한다. 이러한 퀴어 즐거움이 현상하는 지금 이대로도 괜찮은 시간성은 현재에 대한 퀴어 느낌으로서의 즐거움이 삶의 무기가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해준다.

이처럼 퀴어 즐거움의 서사화와 그 의미망은 퀴어 즐거움에 간여하는 윤리적 질문들을 경유하면서 우리에게 좋은 삶 내지는 살만한 삶(livable life)을 탐구하고 만들어나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 질문하게 하고, 가치와 인식의 전환을 매개하는 데 특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지연의 「우리가 해변에서 주운 쓸모없는 것들」과 김병운의 「세월은 우리에게 어울려」 그리고 김멜라의 「저녁놀」 또한 비슷한 스펙트럼 속에서 시간성과 관계성을 다시 쓰는 작업으로 묶일 수 있다.

김지연의 「우리가 해변에서 주운 쓸모없는 것들」의 나체 수영 시퀀스는 이 소설에서 유일한 사전제시(prolepsis)의 시간 조작을 통해 현상됨과 동시에 유일하게 퀴어 즐거움의 정동을 명시적으로 매개한다.

> 눈을 감으면 이다음 해 여름의 풍경이 희미하게 일렁거리는 것을 볼 수 있다. 미래에 할 일들을 계획하다보면 그 여름은 이미 다 지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란 그 여름을 추억하는 것뿐이라는 생각이 든다.
>
> 우리는 수영은 못하고 해변을 걷기만 하다가 돌아올지도 모른다. 아무리 여름이래도 밤의 바다는 추울 테고 일 년 사이 더 늙어 있을 우리에게 호기나 오기 같은 건, 충동적인 농담 같은 건 남아있지 않을지도 모른다.
>
> 대신 우리는 함께 해변을 걷다가 쓸모없는 것들을 잔뜩 주울지도 모른다. 예쁜 소라 껍데기를 하나 주워올 수 있을지도 모른다. 주워온 소라 껍데기를 서랍 속 상자에 잘 넣어두었다가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꺼내 귀에 갖다대고 파도 소리를 듣고 또 서로에게 들려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
>
> 우리는 해변을 거닐다 충동적으로 바다에 뛰어들지도 모른다. 해는 쨍쨍하고 구름도 한 점 없어 땀을 삐질삐질 흘리며 더위에 시달리다 내린 결정일 것이다. 마침내 우리는 바다에서 알몸으로 수영을 한다. 파도

에 몸을 맡긴 채 해변에서 점점 멀어지다가 다시 팔다리를 내저으며 해변에 가까워진다. 소금물에 젖은 등짝이며 목덜미가 햇볕에 바짝바짝 타는 것을, 발끝에 닿는 차가운 물을 뼈저리게 느낄 것이다.

여자친구는 입속으로 왈칵 들어온 바닷물을 뱉어내고 숨을 몰아쉬면서 "그런데 왜 다 벗고 수영을 하고 싶었어?" 하고 물어볼 것이다. (…) …… 아니다. 그 질문은 그때까지 남아 있지 않다. 뭐하러 그러냐니. 그런 물음도 물론 없다.

우리는 아무 말도 없이 오래오래 한가롭게 수영을 한다. 힘이 다 빠져버리기 전에 헤엄쳐 해변으로 돌아온다. 모래사장에는 우리가 벗어놓은 옷들이 놓여 있다. 우리는 머리끝에서부터 뚝뚝 떨어지는 바닷물을 닦고 옷을 챙겨 입는다. 그리고 잠깐 그대로 따끈한 모래에 맨발을 파묻고서서 이다음 여름에는 무얼 할지 이야기한다. 그것들은 실현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당장은 모든 게 실현될 것처럼 말한다. 그럼에도, 어쩌면 그 때문에, 그에 대해 떠들어대는 일은 희한한 기쁨을 준다.

우리가 해변에서 주운 쓸모없는 것들은 이제 모래바람에 파묻히고 없다. 물론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예전에 우리가 모아둔 방식으로는 더이상 없다. 우리는 커다란 비치 타월을 함께 뒤집어쓰고 해변을 떠난다. 천천히. 아직 오지 않은 날 쪽으로.(「우리가 해변에서 주운 쓸모없는 것들」, 36-38쪽)

이 소설에서 이러한 (아름다운) 퀴어 즐거움의 시퀀스는 '결국은 혼자서 외롭게 죽을 거라는' 「사랑하는 일」의 명제와 공명하면서, 지나간 것만 말하는 이 소설의 '나'의 미래 없음의 감각과 유예된 시간성에 대응하는 방식 그리고 이러한 대응이 표상하는 시간적 규범성(chrononormativity)[23]에 대항하여 제시된다. 이

23 시간적 규범성은 퀴어 시간성의 논제에서 우리의 몸과 삶이 어떻게 노동, 가족 생활, 성 역할, 신체적 건강, 시민권을 둘러싼 생산성의 특정한 시간적 레짐으로 규율되는지를 탐구하기 위한 개념이다(Elizabeth Freeman, *Time Binds: Queer Temporalities, Queer Histories*, Durham: Duke UP., 2010, p.xxii; pp.3-7 참조). 이는 노동 주기부터 이성애 결혼, 가족 만들기, 재생산 등 우리의 시간 사회화와 시간 경험, 시간 문화를 구획짓는 제도, 규범, 실

시퀀스는 매우 인상적으로 감각되는데, 이러한 퀴어 즐거움을 매개하는 시퀀스는 시간적 규범성에 대한 대안적 시간의 미래를 서사적 시간 조작을 통해 실제 삶에서는 불가능하며 오직 상상만 가능한 그러한 방식으로 보여줌으로써 김병운의 「세월은 우리에게 어울려」에서의 퀴어 즐거움의 서사화와 공명하게 된다.

김병운의 「세월은 우리에게 어울려」에서 '나'는 P의 2주기 즈음 부산에 같이 가자는 장희의 제안을 받게 된다. '나'가 장희와 함께 부산에 가게 되는 이유는 장희가 처음 만났던 퀴어이고 친족이기도 한 원진무를 만나기 위해서이다. 원진무는 진무 삼촌이라고 불리는데, 실제로는 장희의 오촌 외종숙이지만 장희는 그를 삼촌으로 부른다. 장희는 어머니에게 그가 HIV 감염으로 일찍이 죽었다고 들어 알고 있었지만, 이영서씨의 방문은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알게 한다. 원진무는 감염인으로 20년 넘게 살고 있고, 미국에서 2002년쯤 다시 한국으로 귀국하여 부산에서 무역회사 일을 하다가, HIV 감염인들을 간병하면서 부산 영도 앞바다에서 폭죽 파는 일을 하며 살았다는 것이다. 이영서 또한 HIV 감염인으로서 간병인으로 온 원진무와 처음 만나게 되었고, 이영서는 원진무를 오래 돌보고 함께 하고 있다. 서사적 현재에서 요양병원에 있는 이 진무 삼촌을 만나기 위해 그들은 부산으로 찾아가게 된다.

'나'와 장희는 부산 영도에서 조개구이집을 하는 이영서씨를 만나고 원진무와 비대면 면회를 통해 이야기를 나눈다. 소설은 이처럼 '나'와 장희가 원진무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영서씨를 만나고, 진무 삼촌과 다음 만남을 기약하면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오래 전 장희가 어렸을 때 원진무가 선물해주었던 고장난 줄 알고 있었던 카메라에 이영서씨가 준 휴대용 손풍기 건전지를 넣고 그것이 실은 고장난 것이 아니었음을 알고, 카메라 롤이 자동으로 되감기는 소리는 소리와 함께 그것을 "한 시절의 끝이자 시작"(「세월은 우리에게 어울려」, 238쪽)으로 이해하며 서로를 바라보면서 끝나게 된다.

천 등에 관심하면서 각본 없는 삶의 잠재력으로서의 시간 다양성을 활성화하는 데 관심하는 것으로 이행한다(테레사 뷔커, 김현정 역, 『시간을 잃어버린 사람들』, 원더박스, 2023, 22-329쪽). 퀴어 시간성에 대한 탐색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제기된다(정미선, 앞의 글, 176-177쪽 및 한우리, 「퀴어 시간성」, 박미선 외, 『가족커뮤니티의 개념들 관계편 3 함께하는 시간』,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24, 158-168쪽 참조).

이 소설에서 '나'는 전 연인인 P의 죽음에 대해 접촉 금지와 격리로 인해 애도를 금지당했고 끝내 애도하지 못한 인물이다. '나'는 P의 간병을 하지도 못했고 P의 임종을 지켜보지 못했으며 P의 장례에도 참석하지 못하고 P가 어디에 묻혔는지 아직도 모른다. "도덕적이고 모범적이며 무해하므로 내게도 자격이 있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기꺼이 참고 견뎠던"(「세월은 우리에게 어울려」, 232쪽) 시간들은 '나'에게 그 인내의 시간이 끝내 무의미했음을 깨닫게 했으며, P는 "우리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세월은 우리에게 어울려」, 231쪽)인 P의 원가족들에 의해 게이가 아닌 채로 죽었음이 암시된다.

이 접촉 금지의 모티프는 '나'의 생애를 둘러싼 시간성 뿐 아니라 장희의 시간성에서도 두드러지게 묘사된다. 장희는 원진무가 이미 타국에서 진작 죽었다고 생각하며 살았고, 뭔가가 '옮을까봐' 어린 장희와 원진무의 접촉과 만남 또한 친족들에 의해 금지되었던 것이다. 장희가 어릴 때에 집에 방문하는 삼촌을 장희의 어머니가 경계하면서 보여준 '성적 지향이 옮는다는' 생각, "HIV 감염과 죽음이 동의어인 줄 알았던 그 무지한 세월"(「세월은 우리에게 어울려」, 230쪽)이 살아있는 원진무를 죽은 것처럼 만든 것도 유사한 방식으로 결합한다. 이 소설의 서사적 현재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격리가 시행되어 접촉 금지가 사회적 규약이 되었던 시기인 것도 이와 공명한다.

이처럼 소설에서 계속 시간적 시퀀스들을 쌓아올리며 감염을 둘러싼 시간성이 두드러지는 한편, 이러한 접촉 금지의 모티프는 원진무의 (오인된) 죽음이 "예비 감염인인 자신에게 예정된 미래"(「세월은 우리에게 어울려」, 220쪽)라고 생각한 장희처럼 미래와 죽음과 감염을 등치시키는 방식으로 제시된다. HIV 예비 감염인으로 인식되며 미래-죽음-감염의 연쇄적 시간 표상 속에서 미래 없음을 체현하는 퀴어 존재들에게 세월은 어울리지 않는다. 또는 세월은 접촉 금지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한 죽음과 단절 이상으로 가닿을 수 없는 시간성이다. 하지만 부산에서 HIV 감염인들이 서로를 돌보며 때로는 영도 조개구이집을 운영하는 HIV 감염인이자 게이 아저씨라는 노골적인 실제로 생존하고 살아나가고 있음을 알게 되는 서사적 현재에서, 카메라롤이 되감기고 서로를 바라보는 소설의 마지막 시퀀스는 퀴어 즐거움의 순간으로 이 단절되고 잘려나가고 끊겨버린 버거운 조각난 시간들을 다시금 기워 현상한다. 퀴어함과 동시에 가능한 미래를 이영서

와 원진무의 삶과 '나'와 장희의 삶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상상하게 하는 이 퀴어 즐거움의 순간은, 적법한 정체성을 반영하는 무균 상태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감염과 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 장으로서 감염, 죽음, 애도의 시간성을 다시 쓰면서 장희와 원진무와 이영서와 '나'를 퀴어한 친족 관계로 연결하게 한다.

퀴어 즐거움이 촉진하는 퀴어 시간성과 퀴어 친족 관계성은 김멜라의 「저녁 놀」에서도 발견된다. 이 소설에서 퀴어 즐거움은 주로 딜도의 관점에서 서술되는 대목들의 과대망상에서 기인하지만, 그렇기에 김지연의 「사랑하는 일」에서처럼 이 소설이 이성애중심적인 규범들을 전복적으로 패러디하는 방식으로만 퀴어 즐거움을 모의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보이며 더 나아가 남성중심적인 시각에 대한 패러디를 통해 퀴어 즐거움을 현상한다고 보기도 어려워보인다. 물론 이 소설이 그러한 것들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동시에 이 소설의 딜도 소재는 레즈비언 섹슈얼리티를 둘러싼 약간의 동시대적 논쟁을 상기시키기도 한다는 점에서 다소간의 긴장이 동반되기도 하지만, 이 소설에서 생성되는 퀴어 즐거움의 순간이 레즈비언 섹스의 순간들에 집중되는 것도 아니다.[24]

이 소설에서 주목할 만한 퀴어 즐거움의 순간은 눈점과 먹점이 끌어안고 섹스하기 위해서라는 그럴듯한 핑계와 호기심으로 구매했다가 잊어버리고 만 딜도가 그들이 사는 좁은 집 비우기의 실천 속에서 버려지기 전 상자 속에서 '쓸모'와

24 이 소설은 2018년도 필자가 참여한 서울사포를 위시로 레즈비언 관계성을 레즈비언 페미니스트 관점에서 반성적으로 탐색하고자 한 시도 속, 레즈비언 섹스에서의 딜도 사용이 이성애적 섹스 규범의 내면화에 따른 것인지 이를 급진적으로 변형하는 것인지에 대한 레즈비언 당사자들의 고민과 탐색을 지시한다고도 볼 수 있다(https://x.com/sappho_in-seoul 참조). 그러나 본고는 이 소설을 에로스의 관점에서 조명한 오혜진(2022)과는 다른 논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오혜진, 「'표표, 파파야, 모모'가 있는 풍경」, 『문학과사회』 제35권1호, 문학과지성사, 2022, 272-280쪽 참조. 그 까닭은 이 소설에서 레즈비언 섹스가 퀴어 낙관주의 또는 정치적 급진주의와 연결되는 주요 회로는 아니라는 판단 때문이다. 할버스탬과 아메드가 지적하듯이 성적 행동을 그게 어디서 발견되든 끊임없이 정치적 급진주의와 연결하고 싶어하는 것, 성적 즐거움을 그 자체로 거의 혁명적인 것으로 이상화하는 것은 기이한 일이다. 잭 할버스탬, 앞의 책, 305쪽; 사라 아메드(2023B), 앞의 책, 352쪽 참조. 퀴어 즐거움은 퀴어 섹슈얼리티의 즐거움으로 흔히 상상되곤 하지만 퀴어 섹슈얼리티의 즐거움으로 한정되지는 않을 것이다.

‘무쓸모’의 담론 속에서 번민하고 있을 때, 딜도를 구원한 것은 실은 안마기로서의 다른 쓸모를 찾아서가 아니라 눈점이 딜도에 그린 눈점들이었다는 것이다.

> 눈점은 물끄러미 파파야를 보았다. 대파가 아닌 자신의 문제라는 걸 모르지 않았다. 자신의 나약함이 자기를 좀먹고 먹점까지 힘들게 하고 있었다. 하지만 정말 그런 걸까. 잘 느낀다는 건, 자신 아닌 다른 존재에게 공감하고 되도록 폭력적인 관계를 맺지 않으려고 하는 건, 사회에 적응해야 하는 인간으로서 버려야 할 단점이자 취약함일 뿐인 걸까. 눈점은 여행 가방에 넣어두었던 그림 도구를 꺼냈다. 스케치북을 펼쳐 손끝으로 종이를 쓸어보았다. 일을 그만두고 병원에 다니면서부터 한 번도 그리지 않았던 그림을 눈점은 그날 다시 그리기 시작했다. 오일 파스텔과 마커 펜을 번갈아 쓰며 무언가에 홀린 듯 밤새워 그렸다. 동이 틀 무렵 눈점은 세수를 한 뒤 먹점을 깨웠다.
>
> —이제 됐어. 파파야를 자를 수 있을 것 같아.
>
> 눈점은 그림을 보여주었다. 초록 머리 파파야가 고등어와 함께 바닷가에서 해수욕을 하는 그림이었다. 또다른 그림에선 무, 배추, 토마토가 자란 텃밭에서 파파야가 무당벌레를 타고 날았다. 파파야는 점만한 눈을 달고 활짝 웃고 있었다.
>
> —눈점이네.
>
> 먹점이 그림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
> —오늘 저녁에 골뱅이무침 해줄게. 파채 가득 넣고.
>
> 그러니 오늘은 모닝 키스를 하고 가라고 눈점이 말했다. 집을 나설 때 먹점은 눈점의 입술에 뽀뽀 세 번을 한 뒤 말했다.
>
> —앞으로는 파는 돈 주고 사 먹자.(「저녁놀」, 121-122쪽)

이 소설 속에서 딜도가 레즈비언 섹슈얼리티를 논평하는 젠더화되고 이성애규범적인 담론이든, 눈점이 위 인용문에서 자책하고 눈점과 먹점을 현재적 삶의 지속적 위기로 내모는 자기경영(의 실패)의 담론이든, 눈점과 먹점이 딜도 뿐 아니라 먹점의 책들까지 버릴까 고심하게 만드는 미니멀리즘 담론이든 간에 이들의 공

통점은 쓸모 프레임의 인식론이라는 데 있다. 이렇듯 모든 것을 쓸모와 쓸모 없음으로 나누는 담론들의 교차 속에서, 딜도는 자신이 안마기로서 다른 쓸모를 찾았기 때문에 눈점과 먹점이 자신을 버리지 않은 것이라고 소설의 말미까지 끝내 오인하고 있으며 그 오인은 끝까지 바로잡아지지 않는다.

반면에 독자들은 딜도가 사로잡혀 있는 쓸모와 쓸모 없음의 인식론은 실은 중요한 것이 전혀 아니며, 파파야(파)에게 그러한 것처럼 모모(딜도)에게 눈점이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의 형상에서 먹점이 눈점을 발견하게 되면서, 따라서 눈점이 그것을 '나약함과 취약함'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물에 대한 사랑과 눈점에 대한 먹점의 사랑이 만나서 모모가 쓸모/무쓸모를 넘어 다른 방식으로 함께하게 되었음을 알게 된다. 이처럼 모모의 인식론과 독자의 앎의 인식론이 충돌하면서 이 낙차가 퀴어 즐거움의 순간을 현상하는 것이다. 이 소설에서 퀴어 즐거움은 쓸모와 쓸모 없음을 넘어 서로를 발견하는 함께하는 시간이 갖는 가치에 대한 의미망과 함께, 생존을 넘어 번영으로 향하지 않아도 되는 이 어줍잖은 것들의 관계적 시간성을 긍정하게끔 만든다.

결론적으로, 이 장에서는 퀴어 즐거움의 대안적 측면들을 살펴보았는데 이는 퀴어 즐거움의 논제에서 규범과 주체의 질문들을 넘어 퀴어 즐거움이 어떤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퀴어 즐거움을 윤리적으로 촉진하는 데 유용한 프로세스와 전략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서사적 답변들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퀴어 즐거움은 영원한, 종결된(될) 것을 거부함으로써 커밍아웃의 반복되는 현재성과 삶으로서의 현재적 긴장을 긍정하고 즐거움의 자원으로 인식하게 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공간이 즐거움을 소유물의 형태로 분배하는 경제에 도전하며, 시간적 규범성에 대한 대안적 시간의 미래를 불가능한 시간 조작을 통해 보여줌으로써, 적법한 정체성을 반영하는 무균 상태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넘어 감염과 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 장으로서 우리를 퀴어 친족 관계로 연결하는 가능성과 함께, 생존을 넘어 번영으로 향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성을 '함께 하는 시간'이라는 관계적 시간성으로 제출하고 있다.

4 결론

퀴어가 섹슈얼리티 실천을 넘어 삶의 방식과 삶의 느낌을 포괄하면서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의 정치적 질문으로 향하는 과정은 퀴어 느낌들에 이름을 붙이고 그 의미와 정치적 가능성을 탐색하는 퀴어 (정동)정치의 한 수행을 통해 퀴어 즐거움의 논제와 만난다. 본고에서는 동시대 한국소설의 장에서 특히 김지연, 김멜라, 김병운, 이선진의 소설들이 이러한 퀴어 즐거움의 주제에서 논의될 수 있다고 보고, 김지연의 「사랑하는 일」과 「우리가 해변에서 주운 쓸모없는 것들」, 김멜라의 「저녁놀」, 김병운의 「어떤 소설은 이렇게 끝나기도 한다」, 「9월은 멀어진 사람을 위한 기도」, 「봄에는 더 잘해줘」, 「세월은 우리에게 어울려」, 이선진의 「나니나기」를 분석하여 오늘날 한국소설의 장에 제출되고 있는 퀴어 즐거움의 서사적 사례들과 그 의미망을 해석해보았다.

이 소설들은 퀴어 즐거움의 서사화를 통해 규범과 주체와 윤리를 둘러싼 질문들을 아우르면서, 편안함을 살아내는 몸의 잠재되어 있는 구성소들을 가시화하고 재협상하는 정서 이방인의 형상들을 부각시킨다. 이러한 퀴어 즐거움의 위반적 측면들은 이러한 즐거움이 생성되는 여러 층위에서 때로는 충돌과 실패, 소외와 재협상을 통해 우리의 삶을 구획짓고 정동하게 하며 우리의 퀴어 느낌들을 생성하고 좌절시키는 관계적 규범들을 탐색하게 하고, 이러한 규범화와 특권화에 대한 위반으로부터 저항과 협상의 정도적 스펙트럼으로 향하는 경로에서 퀴어 즐거움을 동원한다. 또한 이 소설들은 퀴어 즐거움이 유인하는 웃음의 순간들을 위반적 경험을 넘어 좋은 삶 내지는 살만한 삶의 다른 가능성을 탐색하는 계기이자 자원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퀴어 즐거움의 대안적 측면들은 영원하고 종결된(될) 것을 거부함으로써 커밍아웃의 반복되는 현재성과 삶으로서의 현재적 긴장을 긍정하고 즐거움의 자원으로 인식하게 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공간이 즐거움을 소유물의 형태로 분배하는 경제에 도전하며, 시간적 규범성에 대한 대안적 시간의 미래를 불가능한 시간 조작을 통해 보여줌으로써, 적법한 정체성을 반영하는 무균 상태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넘어 감염과 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 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퀴어 친족 관계로 연결하는 가능성과 함께, 생존을 넘어 번영으로 향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성을

함께 하는 시간이라는 관계적 시간성으로 제출하고 있다.

우리는 동시대 한국사회에서 퀴어 인구들을 규정하는 데 너무 자주 사용되는 절망과 박탈의 레토릭들을 알고 있으며, 동시에 그 거울상으로서 퀴어 인구들을 규율하는 데 너무 자주 사용되는 올바른 퀴어의 레토릭들을 알고 있다. 이들은 서로를 비추면서 우리의 삶을 긍정성과 부정성의 이분법 속으로 데리고 가며 분열되게 한다. 하지만 동시에 퀴어 인구들은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 꼭 필요하며 그 즐거움이 한정된 어떤 것들에서만 생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이처럼 본고에서 분석한 소설들 속에서도 퀴어 즐거움으로 독해될 수 있는 다양한 양상들은 퀴어 느낌들의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부정성과 긍정성의 분절적 스펙트럼으로부터 어느 한쪽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들 모두를 포괄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퀴어 즐거움의 양상들은 관계적 삶의 규범을 구성하는 다양한 구성소들에 대한 심문으로부터 좋은 삶 내지는 살만한 삶의 느낌들을 재정의하는 데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퀴어 느낌들의 아카이브 속에서 즐거움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정치적 자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25]

아메드는 "즐거움은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몸을 열게 함으로써 몸을 세계를 향해 연다"[26]라고 쓴다. 퀴어 즐거움에 대한 탐색이 퀴어 즐거움의 서사화에 대한 탐색과 함께 행해질 때, 퀴어 즐거움이 우리의 몸을 열고 다른 방식의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사실은 퀴어 즐거움의 정치적 역능과 함께 퀴어 즐거움의 논제와 양상과 효과에 대해 더 나아가 퀴어 즐거움을 어떻게 만들고 경험하고 확산할 것인지에 대해 우리가 관심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27]

---

25 이러한 즐거움은 삶의 관계적 규범들을 성찰하고 대안적인 삶의 방식을 직접 살아나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공유되면서, 특정한 '라이프스타일'에 한정되지 않고 확산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26 아메드(2023B), 앞의 책, 353쪽.

27 더 나아가 어떤 이들에게는 어떤 퀴어 즐거움들은 킬조이의 대상이 되어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 논의한 서사적 사례들 외에도 다양한 퀴어 즐거움과 그 실패들, 퀴어 즐거움의 킬조이 형상들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들에 대한 접근은 차후의 과제로 남긴다.

참고문헌

김멜라, 『제 꿈 꾸세요』, 문학동네, 2022, 95-136쪽.

김병운, 『기다릴 때 우리가 하는 말들』, 민음사, 2022, 171-209쪽; 249-299쪽.

_____, 「세월은 우리에게 어울려」, 『자음과모음』 2022년 겨울호, 자음과모음, 2022, 219-238쪽.

_____, 「봄에는 더 잘해줘」, 『현대문학』 2024년 1월호, 현대문학, 2024, 60-85쪽.

김지연, 『마음에 없는 소리』, 문학동네, 2022, 9-38쪽; 225-253쪽.

이선진, 『밤의 반만이라도』, 자음과모음, 2024, 49-80쪽.

김건형, 『우리는 사랑을 발명한다』, 문학동네, 2023, 49-50쪽; 153쪽; 256-258쪽.

류도향 외, 『가족커뮤니티의 개념들 관계편 2 나와 타자』,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23, 158-179쪽.

박미선 외, 『가족커뮤니티의 개념들 관계편 3 함께하는 시간』,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24, 158-168쪽.

사라 아메드, 김다봄 역, 『페미니스트 킬조이—쉽게 웃어넘기지 않는 이들을 위한 서바이벌 가이드』, 아르테, 2023, 30쪽; 50-51쪽.

_____, 시우 역, 『감정의 문화정치』, 오월의봄, 2023, 319쪽; 350쪽; 352쪽.

잭 할버스탬, 허원 역, 『실패의 기술과 퀴어 예술』, 현실문화, 2024. 228-345쪽.

로런 벌랜트, 박미선·윤조원 역, 『잔인한 낙관』, 후마니타스, 2024, 54-55쪽.

테레사 뷔커, 김현정 역, 『시간을 잃어버린 사람들』, 원더박스, 2023, 22-329쪽.

Judith Butler & Frédéric Worms, *The Livable and The Unlivable*, New York: Fordham UP., 2023. pp.48-60.

Elizabeth Freeman, *Time Binds: Queer Temporalities, Queer Histories*, Durham: Duke UP., 2010, p.xxii; pp.3-7.

Michael D. Snediker, *Queer Optimism*, Minneapolis: Minnesota UP., 2009,

p.3; p.25; p.218.
김시언, 「퀴어 코미디와 수치심의 정동 정치—국내 퀴어 유튜브 및 팟캐스트 콘텐츠와 구독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4.
심은, 「샬롯 브론테의 『빌레트』에서 퀴어 행복 찾기」,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0.
오혜진, 「'표표, 파파야, 모모'가 있는 풍경」, 『문학과사회』 제35권1호, 문학과지성사, 2022, 272-280쪽.
허성원, 「페미니즘의 퀴어정동정치를 향하여: 독해실천으로서의 퀴어정동이론」, 『한국여성학』 제35권 2호, 한국여성학회, 2019, 75-98쪽.
Michael Tristano Jr, "Lingering Longer: Performance, Queer of Color Joy, and Baltimore's VERSION", *Sexualities*, 0(0), 2024, p.3.

Abstract

A Study on the Narrative Networks of Queer Joy and the Politics of Queer Feelings
—Focused on Aspects of Korean Contemporary Novels

Jeong, Mi-seon(Chonnam National University)

Politics of queer feelings goes beyond queer politics of sexuality practices to ask what a good/livable life is. It seeks to name the ways of being and feeling lived by queer bodies, trace their meanings, and explore the possibilities of alternative ways of living. In focusing on the politics of queer feeling in Korean contemporary novels, this study analyses the aspects and narrative networks of queer joy that are prominent in the cases of Kim Ji-yeon, Kim Byung-woon, Lee Seon-jin, and Kim Mel-la.

In these novels, queer joy appears to encompass a binary spectrum of negativity and positivity that constructs an archive of queer feelings, and is accompanied by moments of transgression and negotiation that question the normativity of relational life and redefine the feelings of life through narratives of joy constructed in the lives of queer people. As a result, queer joy in Korean contemporary novels resists privileged life scripts through reflective joy in the construction of normativity that encompasses intimacy, temporality, and affective systems, and proposes the value of queer joy as a generative agent and resource of alternative good/livable lives that embodies political capacities.

Key words: Queer Joy, Normativity, Queer People, Good/Livable Life, Politics of Queer Feelings

논문투고 / 2024.07.21.
논문접수 / 2024.07.22.
게재확정 / 2024.08.05.